

사회복지계, 현안문제 해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0월 21일, 여의도는 사회복지인들의 합성으로 가득찼다.

“복지사회 후퇴시킨 중앙정부는 각성하라”, “지방이양 장난하냐” 등 어느 때보다 강렬한 문구로 사회복지인들이 정부에 외치고 있었다.

대회 시작 일찍부터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은 지방 곳곳에서 모여든 사회복지인들로 북적였다. 사상 최초 최대 규모로 다양한 사회복지분야가 연합해 진행된 이번 대회는, 약 1만여명이 모인 사회복지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사회복지인 결의대회였다.

이번 대회는 사회복지 정책의 국가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중앙정부 환원추구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권익 옹호,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개정 악법 저지 등 사회복지관련 현안사항의 공동해결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분야 참여정부의 공양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사회복지종사자가 전문가로서 정상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담았다.

식전행사에 이어 전국사회복지유권자연맹 정명규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대회는 김용년 재가노인복지협회장의 경과보고, 이번 대회 대회장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의 대회사, 내빈 찬조연설과 사회복지계 각 대표들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날 함께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성명서 낭독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1,2,3,4부로 진행되었는데 2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지방 이양에 따른

1만 여명 사회복지인들의 뜻을 하나로 복지사업 지방이양, 중앙정부 환원 강력히 촉구



▲ 사회복지인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여의도 공원은 이른시각부터 분주했다. 사진은 플랭카드를 들고 행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과 축하공연 모습

문제분석과, 한국사회복지 정상화 대책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격려사를 한 한나라당 정회원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은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며, 국회에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정책의 문제제기에 나서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이무승 회장도 지금 현재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복지사업 지방이양을 중앙으로 다시 환원하고, 지방정부 재정이 좀 더 충족 되었을 때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 대규모 행사에 비해 다소 빈약했던 무대와 1만 여명의 사회복지인들이 모이는 대회였음에도 주요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이번 대회는 끝나는 마지막까지 사회복지인들의 강한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사회복지 정책의 국가책임주의를 고수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중앙정부 환원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을 선포하는 등 아주 의미 있고 다시 한번 사회복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